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8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음력 9월 23일)

삼성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도시가 확 달라졌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에서 길을 묻다

〈1〉프롤로그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들어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총 800조원을 투입해 각각 2기씩 총 4기의 신규 메모리 반도체 팹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전남광주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본보 반도체 특별취재본부는 지난달 21·2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이를 중심으로 성장한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를 둘러봤다. 반도체 팹이 도시와 지역경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살펴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둔 전남광주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특집기사 10·11면



도농복합도시서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농복합도시였던 경기도 평택시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팹·Fab) 조성을 기점으로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했다. 사진은 고덕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남광주에 800조원 투입 반도체 팹 4기 설립

지역내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시동

'삼전 평택캠퍼스' 반도체 핵심기지

P1·2·3·4 가동…세계 최대 규모

P5 건설중…내년 양산 목표 순항

평택의 10년 '천지개벽' 수준 변화

인구 15만명·사업체 102% 폭증

GRDP 약 83%·세입 145% 껑충

2026년 6월2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변방에 머물렀던 전남광주가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농도이자 민주화의 도시였던 전남광주는 이제 반도체를 품은 첨단미래산업 도시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호남은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1960년대 이후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다.

대구광역시는 섬유,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포항시는 철강, 거제시는 조선, 구미시는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을 키워왔다.

60여년간 이어진 수도권 일극 체제와 산업 편중 구조는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국가 전략산업을 권역별로 분담하고 지역마다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토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남광주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신규 메모리 반도체 팹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지역으로 넓히고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한 데다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도로·공항·항만을 통한 물류 접근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다.

이 같은 투자 소식에 일각에서는 '특혜'를 운운하며 호남 발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호남)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해방 이후 호남 지역 인구가 영남보다 훨씬 많았지만 현실에서는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메가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속도'를 꼽은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030년 첫 양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전력과 용수 확보, 인력 양성까지 동시다발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평택시다.

평택시는 1995년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통합해 출범한 도농복합도시다. 평택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평택시 고덕면 일대를 대규모 차세대 반도체 생산기지로 낙점했다.

축구장 400개를 합친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단순한 공장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기술 패권을 향한 삼성전자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2015년 착공한 평택캠퍼스는 2017년 7월 P1에서 첫 양산을 시작했다. 이후 P2, P3, P4 생산라인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성장했다.

현재 P5가 건설 중이며, 내년 양산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공장 증설과 함께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평택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다.

10년간의 변화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4년 44만9천555명이었던 평택시 인구는 2024년 59만8천556명으로 약 15만명 늘었다. 세대수는 18만1천801세대에서 28만5천297세대로 약 57% 증가했다.

아파트는 8만8천820호에서 17만5천685호로 8만6천865호(97.8%)가 늘어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2조1천억원에서 40조4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83% 증가했다. 1인당 GRDP도 4천961만원에서 6천572만원으로 상승했다.

사업체 수는 3만1천985개에서 6만4천714개로 두 배 이상(102.3%) 늘었고, 사업체 종사자도 19만5천771명에서 28만8천561명으로 약 9만3천명 증가했다. ▶2면에 계속 /특별취재본부=박선옥 기자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821조 예산안 설득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경제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적극 재정·법정시한 처리 요청할듯

160조 미래기금 활용 방안도 설명

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 추진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 성장동력,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안전 등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미래 성장과 위기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160조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담겼다. 다만 기금 재원과 운용 방식을 놓고 여야의 견해 차가 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4월에 이어 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김진수 기자

Today

호남 반도체 산단 진입도로 확충 3면

2026 건설산업 기술 연찬회 12면

KIA, 한국시리즈 문턱서 좌절 16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